磨製石劍把部(圖四)

이것은 現在 劍身과 劍把의 一部를 잃어 버리고 있어 元來 어떤 形態의 것인지 斟酌키 어렵다.

그러나 劍把에 未完成인채로 남겨진 穿孔의 痕迹을 보이고 있어 注目을 끈다. 이런 例로 公州博物館에 遺物이 있다. 하나 報告된 바 없어 여기에 紹介해 둔다.

(一九六八、一)

註① 金元龍編『韓國史前遺蹟遺物地名表』P七三 洪城郡條參照
② 金元龍『靈岩郡 月松里의 石器文化』震檀學報二四輯 一九六三、八 P一三八
③ 崔淑卿『韓國摘穗石刀의 硏究』歷史學報第一三輯 一九六〇、一〇、P三五
④ 金元龍 前揭論文 P一四一
⑤ 金元龍 前揭論文 P一四二
⑥ 李蘭暎『江陵市 浦南洞出土 先史時代遺物』歷史學報二四輯 一九六四、七、P一二五
⑦ 有光敎一『朝鮮磨製石劍の 硏究』(京都大學文學部 考古學叢書第三册 一九六〇) P一三

## 資料

### 堤川長樂里 模塼石塔舍利孔

秦弘燮

지난 十二月 二十二日부터 進行된 解體作業中 二十六日 第六層 身部 中央에서 花崗石材가 發見되었다. 이 石材는 高三一cm 上面五一cm 乃至 五四cm의 不等邊 方形 自然石이고 그 中央에 一邊 一三·五cm 深 四·五cm 乃至 五·五cm의 方形孔이 있어 舍利孔으로 推定되었으나 內容은 아무것도 없었다. 또 七層 屋蓋部에서는 相輪部의 破片으로 짐작되는 花形이 透刻된 金銅片과 五層 屋蓋部에서 이 塔에 使用된 石材의 一面에 바둑판을 그린 石片이 發見되었다.

### 新出土 南岳大師碑銘

洪思俊

全北 金山寺域에서 最近發見되었다는 大理石製 碑가 있어서 十二月 初旬 現物을 보았는데 碑石은 上下兩端으로 되었다. 題篆가 若干 알아볼 수 있고 碑上一部와 缺端된 部分은 字形을 알아볼 수 없다. 碑는 大略高一·三三m 幅約五五cm 厚一五cm의 小形碑이다. 南岳大師에 對한 金山寺寺志를 보면 아래와 같다.

「南岳禪師 法名泰宇 號南岳堂 南原人 早年 入出하여 西山大師六世(西山、鞭羊、楓潭、月渚、靈岩、南岳)法孫이다. 英祖八年 (距今二一八年壬子九月二十五日 當寺에서 入寂하며 南岳集一卷이 있다」

그러면 南岳大師는 李朝 肅宗、景宗、英祖代의 人物로 보며 碑文撰者가 吳光運으로 亦是 肅宗 英祖代의 人物임을 人名辭書에서 볼 수 있다. 비록 李朝時代의 碑銘이라 할지라도 金石文으로서 地下에서 出土되었으므로 아래에 그 全文을 紹介한다.

(參考 [ ]標內는 現碑에는 없고 寺志에는 있는 것)

南岳大師碑銘

全哭李西堂而歸有僧蒲伏門前[乞貌]甚哀問之湖南大師在[福也]」 曰某之師泰宇與西堂尙書公好也師之歿西堂將爲之銘今西堂[又]」卒公若不許師之蹟遂滅矣餘願起西堂而不可得聞僧言益悲遂借」(佛?)△道塞悲曰生滅者色 身 也不受生滅者法性也苟能不認漚爲海」△△△之蹟西之筆奚存奚滅爲之悲者妄也然吾與若既不忍其[薪]」△△不謀所以傳其火夊師號南岳本龍城人也性公 無私聰